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베드로) 신부 (badakck@yahoo.co.kr 614-961-0980)
 총회장: 이봉모(바오로) (614-766-1990) 부회장: 최영자(레지나) (614-855-2167)

본당 소식

- ◆ 예수님의 수난과 고통을 묵상하는 사순 시기입니다. 사순 시기 동안 교회는 전통적으로 희생과 극기로서 예수님의 수난과 고통에 동참해 왔습니다. 단식과 금욕을 통해 우리 교우들도 보다 절제된 생활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수난과 고통에 동참하는 복된 사순 시기를 맞으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 재의 수요일 예식 안내
 지난 수요일이 재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오늘 미사 중 봉헌 예식 전에 있을 재의 예식을 통해 머리에 재를 받음으로써 회개의 사순 시기를 뜻있게 시작하도록 합시다.
- ◆ 본당 신부님께서 부친상으로 한국에 계십니다. 세상을 떠나신 김일랑 마태오 형제님과 신부님을 위하여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 2008 교우금 책정 및 납부 안내
 -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고, 신앙인으로서 의무임을 잊지 않고 모든 교우들이 예외 없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우금 책정서에 기입하셔서 재정위원장 김 세실리아 자매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년 예산안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본당 단체는 서둘러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년 Tax Report를 위한 현금 증명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사순 기간 2차헌금
 빈첸시오회 기금마련과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 사순 2주일, 사순 5주일 미사 중 2차 헌금을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미사전 나눠드리시는 성가책과 봉헌봉투가 많이 부족합니다. 혹시 집에 보관하고 계신 분들은 꼭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성가대에서 성가단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박영주 마리아 단장 (614-315-8598)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친교 봉사자
 - 2월 10일: 김정일
 - 2월 17일: 한석철
- ◆ 주일학교 봉사자
 - 2월 10일: 황미령 감영필
 - 2월 17일: 김명희 박수희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626.00
교 우 금	\$850.00

◆ 교 우 금: 이진학 윤형석 서태수 김승재 고상식 정동완 홍그루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the Diocese of Columbus

기도하고 일하라

사순 제1주일 February 10, 2008



<산 위에서의 유혹>

두초(Duccio, 1255-1319), 템페라화, 프릭 컬렉션, 뉴욕

“예수님께서서는 사십 일을 단식하시고 유혹을 받으신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창세기 2,7-9: 3,1-7
“원조들의 창조와 죄”

화답송 ◎ 주님, 주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2 독서 로마서 5,12-19
“죄가 많은 곳에는 은총도 풍성하게 내렸습니다.”

복음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마태오 4,1-11
“예수님께서서는 사십 일을 단식하시고 유혹을 받으신다.”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1,180단 10명	
이호영	130단 2명 6,790단 56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490단 4명 4,435단 45명	
김효임	단 명 1046단 27명	
유대철	단 명 단 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620단 6명 2/22/04 -2/3/08 (206주)	

☎ 총누계: 193,335단 12,623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2월 10일	2월 17일
해설자	김오경	신현태
독서/봉헌	김제준 구역	김효임 구역
보편지향 기도	평화의 모후	상지의 옥좌

오늘의 성가

♫ 입당: 13 ♫ 봉헌: 219
♫ 성체: 170 171 ♫ 파견: 124

유혹

고준석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 서울대교구

교회는 재의 수요일로부터 부활 전야까지 40 일 동안 사순절을 지내게 된다. 사순절은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로서, 그리스도의 수난과 고통의 의미를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은총의 시간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광야에서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신다.

첫 번째, 빵의 유혹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마태 4,3).

이것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다.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40 일씩이나 단식을 한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변화시켜 먹어 보라는 것은 가장 큰 유혹이 아닐 수 없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음직스런 빵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 배고픔을 느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배고픔이 얼마나 커다란 고통인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마태 4,4).

두 번째는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명예에 대한 유혹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마태 4,6).

이 유혹은 참으로 매력적인 유혹이다. 사람은 누구나 남 앞에서 무엇인가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함으로써 뽐내고 싶은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유혹의 말은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이로써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최고가 되려는 마음을 건드리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나 명예는 얼마나 매력적인가? 인기를 얻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고 양심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마태 4,7).

세 번째로 세상의 권력과 부귀영화의 유혹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며, 당신이 땅에 앞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마태 4,8-9).

너무나 탐스러운 유혹이다. 남을 지배하고 그 위에 우뚝 서서, 남에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은 얼마나 탐스러운가? 그렇기에 세상의 권력과 부귀영화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이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절히 싸우고 있는가? 모든 부정부패가 이것으로 인해 생기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사탄아, 물러가라”(마태 4,10).

그렇듯 오늘 복음의 이 세 가지 유혹은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유혹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먹음직스런 빵과 재물, 남에게 받고 싶은 인정과 명예, 남 위에 군림하는 힘과 권력, 그것은 참으로 매력적이고 탐나는 것들이다. 그렇듯이 모든 유혹은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갖고 싶어하는 것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